



특 집 양돈산업의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

# 양돈장 인력수급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



박 중 회 국장  
한국양돈연수원

양돈장 인력수급 현황과 향후 개선대책

## 1. 인력수급의 문제

**우** 리 양돈장의 인력문제라면, 농장주의 후계자가 없다는 경영자 문제, 조금만 현장경력이 있어도 농장장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아랫사람할 사람은 없는 관리자 문제, 돈 5만원, 10만원만 더 준다 해도 옮겨가기 위하여 날마다 벼룩시장·교차로의 구인란을 뒤지는 내국인·외국인 실무자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각각이 양상과 해법이 전혀 다르니까요.

물론, 이 세 가지 문제가 3D업종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때돈을 버는 소식들이 성실한 노동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언론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되는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라서, 그 원인을 우리 양돈농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본 해결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나 동남아로 양돈장을 옮기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인가요?

## 2. 후계자 문제 : 후계자 없어야 해결?

양돈장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수십억을 들여 애써 가꿔놓은 주인으로서야 더 없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양돈을 하지



않는 일반인, 심지어 그 주변에서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까지, 후계자 없어서 양돈장을 문닫으면 환경오염 안시켜서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같은 양돈을 하는 이웃에서도 여차피 지금 16,000호의 양돈 농가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5,000호로 줄어들테니 후계자 없는 농장이 2/3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좋아할 것이고, 농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농장종업원이나 다른 업종 종사자 또는 봉급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후계자 없는 농장을 노리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후계자 없다고 자녀 중에 하나를 억지로 후계자를 만들려 해도, 자식농사는 뜻대로 안된다는 말이 있듯이 원한다고 자식이 컴퓨터·IT 업계로 진출하려던 꿈을 접고 농장으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뜻대로 안되어 농장으로 돌아오면 그 때 다시 받아들여 가르쳐도 늦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농장 경영을 배우므로 더 잘 배우는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후계자로 육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쟁력 있는 후계자는 양돈 기술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마케팅·세계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소양을 갖

추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후계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규교육도 하고 병역면제 혜택까지 주어가며 특별히 만들어 놓은 한국농업전문대학에 보내서, 정규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외국연수까지 제대로 시켜서 모든 소양을 다 갖춘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후계자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도 후계자가 될 본인이 양돈을 물려받을 생각이면서도 출신학교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일반대학을 원하거나, 아예 대학 가기를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계



● 양돈기술 뿐만 아니라, 인사·경영·마케팅·세계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등 모든 소양을 다 갖춘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후계자육성 프로그램이다.

자에게는 별도의 육성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예 양돈이 싫다거나, 딸 밖에 없는데 사위조차 양돈이 싫다면 후계자는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양돈장에 팔거나, 법인을 만들어 회사체제로 계속 양돈을 하거나, 후계자는 없어도 양돈장을 계속하는 길은 많습니다.

### 3. 관리자 문제 : 전산기록으로 평가·육성

양돈연수원으로 교육을 보냈더니,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월급비교나 하여 월급 올려 달라기나 하거나, 얻은 정보로 다른 농장으로 가버리거

나, 주인에 대한 불평을 서로 합창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하여 다시는 양돈연수원 교육에 보내지 않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작용보다 더 큰 효과가 있기에 교육생은 계속 입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가진 강사들의 교육이 교과서적인 교육과 다르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좋은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는 그런 교육 외에도 사료회사나 동물약품회사, 종돈회사 등에서 주관하는 실제로 유용한 교육들이 많으므로 잘 골라서 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모든 교육에 다 보낼 수는 없고,

또 교육보다는 자기네 제품 선전에만 집중하는 교육도 많으므로 가려서 참석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교육은 외부에 맡겨서도 해야 하지만, 농장주가 직접 업무를 하면서 교육(OJT)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돼지를 다루는 기술·기계 장비를 다루는 재주·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런 능력들은 보아서 알고 느낌으로 알 수 있으나, 결국은 전산기록의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능력검증을 하고, 숫자로 개선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므로, 전산기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관리자들은 구직 면담을 할 때, 자기가 OO농장에서 근무했으며 그 때 그 농장의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하

지만, 그게 사실인지, 그가 거기에 근무했는지, 그 성적이 과연 그의 공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장끼리 정보교류가 필요하고, 관리자의 능력을 숫자화·객관화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으므로, 내 농장에서 전산성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4. 실무자 문제 : 내·외국인 실무자는 다른 대책으로

가. 외국인 실무자(노무자)도 필요 : 반드시 합법적으로 써야

내국인은 농장의 일을 하려



● 관리자는 돼지를 다루는 기술·기계 장비를 다루는 재주·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쓰되, 출신 국가나 개인능력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들지 않으니 외국인으로 하려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합법화 해주고,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어 합법적인 연수생을 넣어 주었지만, 그 숫자도 기대만큼 연수생이 오지도 않고 받고자 하는 농장도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불법으로 외국인을 쓰는 것이 잘 단속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산재사고라도 나면 어쩍니까?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내 돈으로 다 치료해 주거나, 치료도 안해주고 내쫓아버리는 파렴치한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직접 단속이 나오면 꼼짝없이 범법자가 되는데, 아직은 사회 전체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없으면 중소기업 다 망한다고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일제단속을 양기에 무사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쓰되, 출신 국가나 개인능력에 따라 고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내국인과 노동효율은 2~3배 차이도 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써야 합니다.

2004년 2월말 현재로 외국 산업연수생이 양돈업에 350여명 배치되었고, 지금 요청해 놓은 농장의 요구인원은 390명 정도 됩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서는 2,000~3,000명은 있어야 인력난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 정도 밖에 원하지 않는 것은 노동 효율문제와 언어소통의 불편,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싫어하는 관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연수생을 받으려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 나. 내국인 실무자에 눈을 돌리자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다고, 특히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막상 일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양돈장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양돈장에서 커서 양돈전문가가 되거나 양돈장 주인이 되려는 사람을 양돈장의 실무자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농장환경개선·후생복지·문화생활·대규모

의 조직체계 등 하루 아침에 해내기 어려운 일들이 선결되어야 그런 실무자를 모시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여건이 미비한 곳에서는 일반직장에서 잘 안 받아주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놓고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일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대해주면 충실하게 농장의 필요한 부분을 맡아서 기여합니다.

그런 사람 말고도, 조기퇴직·명예퇴직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한 사람과 여성 노동자도 농장에서 충분히 한 부분을 맡아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젠 농장도 힘드는 일은 기계로 다 하고 있으므로, 숙련되지 않고 힘이 세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한국양돈연수원에서는 이런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켜 양돈장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모집일정·교육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많은 취업생에게 알려지도록 양돈 관련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양돈**